

WWL 2023 Press Release

For publication 12:00am on 18 January 2023

2023 년 기독교 박해지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이슬람 폭력이 지역을 휩쓸면서 심각한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SSA)는 나이지리아 (7)에서 종교로 인해 촉발된 폭력이 부르키나 파소 (23), 카메룬 (45), 말리 (17), 니제르 (28)와 같은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급속도로 지역을 휩쓸면서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하디스트 확장의 조짐은 모잠비크 (32), 콩고 DR (37),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도어 2023 년 기독교 박해지수 (WWL)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WL)는 기독교인이 가장 심각한 박해와 차별을 당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결과 (괄호 안에는 해당 국가의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이다):

- 중국 (17)은 보편적인 기준과 종교적 자유를 떠나서 인권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반대 목소리는 '말썽꾼'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라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교회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면서 기독교인을 더욱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 북한 (1)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의 박해 상황으로 다시 기독교 박해지수 1 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폭력의 움직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WWL)를 발표해 온 지난 30 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박해 현상은 놀랄 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SSA: 대륙 전반에 걸친 재앙이 일어난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극도의 폭력을 휘두르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SSA)의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은 우려되는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풀라니, 보코하람,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주 (ISWAP) 등의 무장 세력이 기독교 공동체 습격, 살해, 불구, 강간, 몸값 또는 성 노예를 목표로 한 납치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살인은 작년 4,650 건에 비해 5,014 건으로 늘어났고 이것은 전 세계 총 건수의 89%에 해당할 만큼 엄청납니다.
- 수 십만 명이 국내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 올해에는 이러한 폭력이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남부로 번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 폭력은 단지 문제의 일부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화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에 극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나이지리아 정부는 계속해서 이것이 종교적 박해임을 부인하고 있어 기독교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행위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디스트의 폭력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SSA) 전역에 걸쳐서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지역의 26 개 나라는 매우 두드러진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거래의 치명적인 혼합, 기후변화, 그리고 크렘린이 후원하는 바그너 그룹의 용병 유입은 이슬람 테러 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월드와치리서치 (World Watch Research)의 전무이사인 Frans Vee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전체가 재앙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국가 (IS)와 이에 소속된 단체들의 목표는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대륙 전체에 걸쳐서 이슬람 칼리프 체제를 수립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이룰 것으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폭력적이면서 체계적인 이슬람화에 집중하는 다른 이슬람교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에 의한 숙청의 실체를 직시하지 않는 것은 아프리카의 정부 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부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부인에 대한 대가는 막대합니다."

중국과 그 너머에: 보편적 인권의 종말

중국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통적인 개념의 인권을 생존, 발달, 안보와 같은 더 주관적 '권리'로 재정립하는 국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 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중국 외교장관이 연설한 내용 중*)

- 스리랑카 (52), 미얀마 (14), 말레이시아 (43), 그리고 몇몇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62)와 인도 (10)가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 기독교 소수자들은 집권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와 같은 새로운 '권리'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평화 방해자' 또는 '테러리스트'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체포, 교회 철거, 교회가 등록 취소 되는 등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 중국은 교회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전면적인 새로운 규정을 가하며 1억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더 억압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검열, 허위정보, 그리고 지나친 감시를 시행했습니다.
- 코로나 19에 도입된 추적 어플리케이션과 수집된 데이터가 재사용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거래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 눈 감아줄 몇몇의 서방 기업들과 같이 필요한 기술을 기꺼이 수출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 http://geneva.china-mission.gov.cn/eng/dbdt/202102/t20210222_9899531.htm

북한: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행하며 다시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기록

북한은 2002년 이래 지난 번 보고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가장 높은 박해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독교인이 체포되고 더 많은 지하교회가 발각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 당한다는 의미는 곧 처형 또는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 고문, 그리고 성폭력을 당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위의 상승은 북한 내에 성경을 포함한 외국에서 온 모든 출판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징어게임과 같은 한국 티비 쇼를 시청하는 십대 소년들을 투옥하거나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는 인쇄되거나 전자 형태의 다른 기독교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정권 공격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단 하나의 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씨 일가입니다." 탈북자, 티모시 조 (Timothy Cho).

아프가니스탄 - 1년 후

아프가니스탄 (9)은 2022 년에 1 위에서 올해에 9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락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2021 년에 발생한 잔혹한 정권 장악 이후 탈레반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내어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깊이 숨거나 해외로 피신했습니다.

2022 년 동안에 탈레반은 남아 있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는 것 보다 전 정권과 연관된 이들을 근절하는 것에 집중을 강화했습니다.

이웃 나라로 피신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희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저의 어머니와 저는 간신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왔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숨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추방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간 기독교 난민, 자비 (Zabi)

한편,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에 필사적인 탈레반은 국외의 의사 또는 기술자들이 나라 안에서 활동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소속은 엄격하게 감시 되지 않고 이는 기독교 박해지수 합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WL) 30 년 – 충격적인 동향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WWL)를 발표해 온 지난 30 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박해 현상은 놀랄 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3 억 6 천만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 최소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 1993 년에는 기독교인들이 40 개의 나라에서 높은 또는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2023 년에는 박해를 당하는 나라의 수가 76 개로 두 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 상위 50 위 안에서만 봐도 현재 3 억 1200 만명의 기독교인들은 매우 높은 또는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독교인들 7 명 중 1 명은 최소 '높은' 수준의 박해 또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는 5 명 중 1 명, 아시아는 5 명 중 2 명,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는 15 명 중 1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밖의 동향 브리핑:

• **중동에서 기독교 교회는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살해 당한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었지만 (한 가지 예외로 시리아 (12)는 2023 년 기독교 박해지수 보고기간 동안 일련의 폭력 사건이 관찰됐다), 이슬람국가 (IS)가 급증한 이후로 회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의 요람인데 많은 교회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차별과 빈곤은 견디기 너무 버겁고 특히 신자로서 장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Rami Abed Al-Masih(MENA ARM: Middle East & North Africa Advocacy Regional Manager)**

• **한 개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 니카과라 (50)가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해 시위에 대한 재판도 없이 투옥 당한 니카과라, 베네수엘라 (64), 쿠바 (27)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이 만연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는 조직범죄가 장악하고 있고 기독교인이 카르텔 활동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골 지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희망의 불빛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들의 수는 기록된 사례로 5,898 건 (2022 년 기독교 박해지수) 에서 5,621 건 (2023 년 기독교 박해지수)으로 조금 줄었으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분명한 예외입니다. 신앙 관련 이유로 인해 납치 당한 기독교인들의 수는 기록된 사례로 3,829 건 (2022 년 기독교 박해지수) 에서 5,259 건 (2023 년 기독교 박해지수)으로 늘었습니다.

바레인 (55 점), 아랍에미리트 (62 점), 그리고 이집트 (68 점)을 포함한 몇몇의 중동 국가에서 더 많은 관용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집트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계속되고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올해 카타르 (74 점에서 68 점으로 낮아짐)도 박해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2023 년 기독교 박해지수 보고기간 동안 강제로 문을 닫게 된 교회가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보고기간 동안 문을 닫은 교회들은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 끝 -----

인터뷰 신청을 위해 (인터뷰 대상자 입력) 연락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심해졌고 기독교 박해지수가 시작된 30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전 세계 3 억 6 천만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 이 수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7 명 중 1 명에 해당합니다.

2023 년 순위 (괄호 안에는 작년 순위이다)

1. 북한(2)
2. 소말리아(3)
3. 예멘(5)
4. 에리트레아(6)
5. 리비아(4)
6. 나이지리아(7)
7. 파키스탄(8)
8. 이란(9)
9. 아프가니스탄(1)
10. 수단 (13)
11. 인도(10)
12. 시리아(15)
13. 사우디아라비아(11)
14. 미얀마(12)
15. 몰디브 (16)
16. 중국(17)
17. 말리(24)
18. 이라크(14)
19. 알제리(22)
20. 모리타니(23)

21. 우즈베키스탄(21)
22. 콜롬비아(30)
23. 부르키나파소(32)
24. 중앙아프리카 공화국(31)
25. 베트남 (19)
26. 투르크메니스탄(25)
27. 쿠바(37)
28. 니제르(33)
29. 모로코 (27)
30. 방글라데시(29)
31. 라오스(26)
32. 모잠비크(41)
33. 인도네시아(28)
34. 카타르(18)
35. 이집트(20)
36. 튀니지(35)
37. 콩고민주공화국(DRC)(40)
38. 멕시코(43)
39. 에티오피아(38)
40. 부탄 (34)
41. 터키(42)
42. 코모로 (53)
43. 말레이시아(50)
44. 타지키스탄(45)

- 45. 카메룬(44)
- 46. 브루나이(46)
- 47. 오만 (36)
- 48. 카자흐스탄(47)
- 49. 조던 (39)
- 50. 니카라과(61)

기독교 박해지수와 수치가 수집되는 방법에 관하여

첫 기독교 박해지수는 1993 년 1 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별 종합 박해 점수는 사생활, 가정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압박 수준과 폭력의 수준 등 6 개의 점수를 합친 것입니다. 올해의 기독교 박해지수는 2021 년 10 월 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 까지 기간을 포함합니다.

매년 초에 발표되는 기독교 박해지수는 폭넓은 연구,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데이터, 그들의 현지 네트워크, 외부 전문가, 그리고 박해 분석가들과 함께 전 세계 박해 상황을 수치로 나타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 호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의 인증을 받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방법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오픈도어 영국 & 아일랜드 (당신의 국가를 입력하고 수치를 확인하세요)

오픈도어 영국 & 아일랜드는 60 년 이상 60 개의 나라에서 박해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지지하고 강하게 만든 글로벌 NGO 네트워크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박해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트라우마 보호, 법률적 도움, 안전한 집과 학교, 기독교 문헌 및 훈련과 자원을 통한 영적 지지와 같은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1 년에 오픈도어 영국 & 아일랜드는 1,690 만 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